

수시모집 1만명 이상 늘어난다... 최저학력기준은 완화세

2023년 대입 전망

전체 정시 모집인원 7493명 ↓
36개 대학 1.1만명 논술 선발
선호도 높은 대학일수록 정시 ↑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국 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이 올해보다 1만명 이상 늘어난다. 수시 모집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정시 모집 인원이 줄어들지만, 수도권 대학은 정시 선발 인원이 825명 증가한다.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해 논술 영향력이 향상하는 한편,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완화하는 추세다.

◆2023학년도 대입 총 34만9124명 선발...전국 '수시' 서울권 '정시' 늘어

2023학년도 대입에서는 총 34만9124명을 뽑아 2022학년도 입시보다 2571명 더 많이 선발한다. 특히 선발인원 증가는 수시 모집에서 많이 일어난다. 수시 모집에서는 전년 대비 1만64명을 더 선

〈2023학년도 대입 권역별 모집인원〉 /대학교별

권역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전년 대비 증감	
				수시	정시
수도권	85,220 (64.7%)	46,562 (35.3%)	131,782	1,395	825
비수도권	187,222 (86.1%)	30,120 (13.9%)	217,342	8,669	-8318

발하며, 대신 정시 모집인원은 7493명이 줄어든다.

단,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시 선발인원 역시 825명 증가한다는 점이다.

수도권 대학들도 정시 모집 비중이 35.3%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선호도 높은 대학일수록 정시 선발 비율은 40%에 가까워진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수시 선발인원이 많더라도 정시와 수능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논술 실시 대학 증가...논술 영향력

증가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한다. 총 36개 대학에서 1만1016명을 논술전형으로 선발한다.

홍익대(세종)가 논술전형을 도입하며 121명을 선발하고 서경대 역시 SKU 논술우수자 전형을 신설해 219명을 선발한다.

하지만 기존 논술 선발 대학 중 모집인원을 줄인 대학들이 있어 전반적인 평균 선발인원은 감소하는 추세다. 2020학년도 대학별 논술 고사 선발인원은 평균 368.1명이었으나 계속해서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306명에 머무

른다.

논술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가천대로 914명을 선발한다. 이어 ▲수원대 528명 ▲한국외대 477명 ▲인하대 469명 ▲경북대 472명 순으로 선발인원이 많다.

우연철 소장은 "논술전형을 통한 당락은 학생부 성적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학생 선호도가 높아 경쟁률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학생부 영향력을 더욱 줄인 대학이 많다. 덕성여대와 성균관대는 2023학년도 학생부 성적 없이 논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숙명여대와 한양대는 학생부 반영 비율을 10%로 줄이고 논술 반영 비율을 90%로 높였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추세

지난해 서울권 주요 대학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대부분 감소했다.

하지만 고려대의 경우 수시 이월 인원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높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하 최저기준)을 충족하

지 못한 학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2023학년도 고려대는 학교추천전형의 최저기준을 전년보다 낮춘다. 인문계열은 '3개 영역 등급 합 5이내'에서 '3개 영역 등급 합 6이내'로 자연계열은 '3개 영역 등급 합 6이내'에서 '3개 영역 등급 합 7이내'로 최저기준이 변경됐다.

특히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주요 대학 중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세종대 등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소폭 완화한다. 건국대는 2023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다.

반면, 경희대 논술전형 약학과,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숭실대 학생부우수자와 논술전형은 최저기준이 전년 대비 다소 높아진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므로 수능 대비에도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교육청-서울대, AI기반 미래교육 맞손

스마트기기 안전 사용 환경 조성 중·장기 공동연구 주제 발굴 협력

서울시교육청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11일 스마트기기의 안전한 사용 및 인공지능(AI)기반 미래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온라인 학습플랫폼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학교 교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서 개발한 스마트기기 사용 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교육 관련 중·장기 공동연구 ▲디지털 기반의 안전하고 자율적인 학교 교

육환경 조성 ▲소프트웨어 활용에 따른 개선 사항 도출 등을 협력하게 된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서 개발한 '포커스버디'는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시간 중 학생 기기와 교사의 기기를 연동해 제어하고, 유해사이트 차단 및 학습활동 외로 이용하는 앱 차단 기능 등을 제공해 교사와 학생이 교수·학습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특히 학부모·학생의 동의에 따라 '디벗' 외 마트폰, 태블릿PC 등 학생의 기기를 통합 관리해스스로 디지털기기의 사용시간 및 학습활동을 주도적으로 조

절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포커스버디를 '디벗'에 적용해 2022년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시작되는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에서 원활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양 기관은 학생·학부모·학교의 희망에 따라 AI 기반의 학습·놀이 행동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분석, 학습처방 등 교육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 발전에 관한 중·장기 공동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숭실대GTEP, CES 2022서 현장 마케팅

제품시연·바이어 상담 등 진행

숭실대학교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업양성사업단(GTEP)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2'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GTEP사업단 김병준(영어영문, 4), 김보영(글로벌통상, 3), 노희지(중어중문, 4), 배권일(글로벌통상, 3), 신승하(글로벌통상, 4), 여소연(독어독문, 4), 정나현(글로벌통상, 3), 정혜연(중어중문, 3) 등 총 8명의 학생들은 편진·매크로엑스·웰스케어·테스토닉·링크페이스·허니아아이티 등 6개 협력업체와 함께 제품시연, 바이어 상담 등 현장 마케팅을 진행했다.

협력업체와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



숭실대 GTEP사업단 학생들이 CES 2022에서 관람객들에게 협력업체의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숭실대

며 제품에 대해 숙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CES 전시회를 준비해온 숭실대 GTEP사업단은 바이어들에게 직접 제품을 시연하고 통역하는 등 상담을 진행했다. GTEP사업단은 협력업체의 수출관로 확장을 위해 바이어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사후 관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초고강도 섬유형 슈퍼커패시터 개발

양승재 화학공학과 교수팀 10kg 원판 매달고도 안정적 작동

인하대학교는 양승재 화학공학과 교수(사진)팀이 재료연구원 복합재료연구본부 김태훈 박사팀과 함께 고강도와 고에너지밀도를 구현한 섬유형 슈퍼커패시터를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논문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과학진흥회(AAAS)가 발행하는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의 2022년 1월호 온라인 피쳐 아티클로 게재됐다.

이번에 개발된 섬유형 슈퍼커패시터는 이중벽 탄소 나노튜브 섬유와 금속-유기 골격체를 복합화해 고에너지밀도를 동시에 달성했다.

또한 무거운 하중을 견디는 등 극한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양승재 교수팀은 이중벽 탄소 나노튜브 섬유와 금속-유기 골격체를 복합화하고 탄화공정을 통해 이중벽 탄소 나노튜브의 고강도 및 고전도성을 유지하며 마이크로 기공이 발달한 복합섬유를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섬유형 슈퍼커패시터는 다양한 변형 조건에서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며 우수한 에너지 저장 성능을 보였다.

게다가 10kg 원판을 매달고도 안정적으로 작동해, 최초로 높은 하중을 견디는 초고강도 섬유형 슈퍼커패시터를 구현했다.

/이현진 기자

사이버한국외대

진료중국어 묶음강좌 개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10일부터 대학의 신규 묶음강좌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케이무크) 플랫폼에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이버한국외대 묶음강좌 주제는 '클릭하며 배우는 진료중국어(FLEX-2급)과정'으로, ▲쉽게 들어가는 중국어 입문 ▲패턴으로 정복하는 중급 중국어 ▲통증을 알아듣는 진료 중국어 ▲통증을 물어보는 진료 중국어 등 4개 강좌로 구성돼 있다.

진료중국어과정은 예비의료인 및 의료진의 중국인 진료를 위한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료강좌로 케이무크 홈페이지에서 오는 28일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묶음강좌 과정은 FLEX-2급의 중국어 수준을 입문부터 '초급-중급-활용-고급'까지 4 단계로 나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현진 기자

전문대교협 전문대 교직원 온라인 연수 지원

5개 분야 14개 과정 개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국 133개 전문대학교·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동계방학 온라인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5개 분야에서 14개 과정이 개설된다. 총 36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기존 교육과정에 8개 과정을 신규로 개설됐다.

이번 동계 온라인 연수의 특징은 모든 과정을 실시간 온라인 원격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번 동계방학 연수 분야는 전문대학 현장의 수요 반영과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향후 전문대

학 교·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수법을 포함한 교육혁신 역량과 직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법 분야 ▲역량 기반 교육과정 분야 ▲산학협력 강화 분야 ▲인포그래픽 활용 분야 ▲온라인 해외연수 분야 등 총 5개 분야의 14개 과정을 개설하고 총 36회 차를 운영한다.

연수 분야는 ▲블렌디드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 온라인 교수학습법 분야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성과분석/성과관리 사례 중심 과정 및 산학협력 활동 최적화 방안을 통한 산학협력 강화 분야 ▲직업교육 해외 동향 파악과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해외연수 분야 등이 운영된다. /이현진 기자